# 이정효 감독 "광주FC 변화의 시즌, 우려를 기대로"

## 이희균·허율 등 '정효볼' 핵심 멤버 이적에 새 판 짜기 분주
## "신인도 감독도 성장하는 시즌…팬들 즐겁도록 경기 할 것"

희균·율이도 없고 호연이도 없고… 그럼에도 '정효볼'은 계속된다.

광주FC 이정효〈사진〉 감독이 험난한 변화의 시즌을 앞두고 있다. 올 시즌 광주는 마철준 수석코치 체제로 새 판을 짰다. 지난 3년 주장 완장을 찼던 '최고참' 안영규를 대신해 '원클럽맨' 이민기를 중심으로 이강현·김진호로 새로운 주장단을 구성했다.

무엇보다 이희균, 허율, 정호연 등 '정효볼' 핵심 멤버들의 이적이 있다. 거침없이 달려왔던 이 감독도 "걱정이 앞선다"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지난 3년 한계를 넘어 K리그에 돌풍을 일으켰던 이 감독은 "우려를 기대로 바꾸겠다"며 2025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감독은 "벌써 광주에서 4년 차다. 처음 부임했을 때 사람들이 아마 3개월, 6개월 만에 잘릴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며 "'얼마나 잘하나 보자'는 시선이었다. 그래서 더 오기가 생겼고, 나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는 생각을 했다.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해야 코치생활 오래하고 경험 많은 분들에 대한 생각이 바뀔 거라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기존의 틀을 깬 모습을 보여줬던 이 감독. 그만큼 쉽지 않은 여정이기도 했다.

그는 "남들과 다르면 좋게 보지는 않는다. 한 번도 내 자신이 특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특별하다. 그 노력은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을 벗어나 몇 배를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남을 조금 앞서갈 수 있다"며 "나도 열심히 하지만 팀 모두 열심히 한다. 선수들은 운동 열심히 하고, 코칭스태프·지원스태프도 역할 분담을 하면서 많이 노력한다. 내가 전술, 훈련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게 다들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은 쉴 틈 없는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이 감독은 "시간에 계속 쫓겼다. 미팅하고, 훈련도 안 빠지고 시간 맞춰서 하고, 구단 운영과 선수 이적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해서 힘들었다. ACL 원정도 있었다"고 돌아봤다.

바쁘게 달려왔던 이 감독은 지난 겨울 유럽으로 떠나 축구 본고장의 경기를 보고 돌아왔다. 힐링의 시간이자,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이 감독은 "나는 선수가 아니라 감독을 보러 간다. 전술, 팀을 본다. 감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런 플레이를 하는지 본다. 내가 저 감독을 따라잡은 부분이 있나? 부족한 면이 있나? 이런 걸 확인하러 간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새 시즌 밑그림을 그린 그는 업그레이드된 '정효볼'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감독은 "올 시즌 우리 축구는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다(웃음).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어떤 부분을 감독이 원하는지 직접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이다. 안 바뀌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관심 있게 몰입해서 보는 분들은 많이 바뀐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올 시즌 전술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선수들은 "빠른데 더 빨라졌다"고 말한다.

이 감독도 훈련 때부터 설명 시간도 최소화하고 빠른 템포로 선수들을 몰고 있다. 이 감독이 추구하는 팬들을 위한 '재미있는 축구'를 위한 노력. 이 감독은 선수들이 재미를 느낄 틈도 없이 달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 감독은 "선수들이 가끔 재미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안에서 경쟁하고 어떻게 압박을 풀 건지, 어떻게 골을 넣을 건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하는데 선수들이 재미있을 시간이 어디 있나. 경기 보는 사람들이 재밌어야 된다"고 말했다.

주축 선수들의 이탈에도 선수단은 좋은 분위기에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선수들이 나를 너무 많이 믿는 것 같다"며 웃은 이 감독은 "걱정이 된다. 안 될 수가 없다. 그래도 축구 시스템이 있고 철학이 있다. 또 새로운 선수를 잘 만들어야 된다.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된다. 우려를 기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로 돌아온 헤이스와 성장세의 선수들이 기대감을 키운다.

이 감독은 "헤이스가 리더십이 있다. 기량적으로도 팀에 도움이 되니까 선수들이 좋아한다"며 "변준수, 김진호가 성장했다. 신창무도 좋아졌다. 22세 선수 중에는 김윤호가 운동, 공부 많이 하고 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올해 3학년인 금호고 김윤호는 지난해 광주의 첫 준프로 계약을 맺은 유망주로 '17세 4개월 17일'이라는 K리그1 최연소 출전 기록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김윤호는 경기가 끝난 뒤 눈물을 쏟았다.

이 감독은 "경기 끝나고 '이렇게 할 거면 다시 고등학교 돌아가라'고 했다. 이번에 준비를 많이 하고 왔다. 2007년 생인데 훈련 템포 따라가는 것 보고 깜짝 놀랐다. 마인드가 상당히 좋다"고 말했다.

새 얼굴을 키우는 게 중요한 숙제가 됐지만, 이정효 감독을 '성장'을 키워드로 선수들과 함께 갈 생각이다.

이 감독은 "'내가 저 선수들을 잘 가르쳐야겠다' 고 생각했는데 올해 생각이 바뀌었다. 선수들 성장시키고 나도 성장하자는 생각이다"며 "많은 팬들이 운동장에 오셔서 선수들에게 힘이 되어주면 좋겠다. 팬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게 선수들과 준비 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김아림, 코다 제쳤다…LPGA 개막전 우승

## 힐튼 그랜드 배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제패…4개월만에 투어 3승

김아림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5시즌 개막전에서 우승했다.

김아림은 3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 골프 & 컨트리클럽(파72·6624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힐튼 그랜드 배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200만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로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20언더파 268타를 기록한 김아림은 2위 넬리 코다(미국)를 2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1~4라운드 내내 선두를 놓치지 않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다.

2020년 12월 US여자오픈에서 처음 우승한 김아림은 지난해 11월 롯데 챔피언십에 이어 투어 3승을 달성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30만달러(약 4억3000만원)다.

김아림은 올해부터 메디힐을 새 후원사로 맞이하고, 최근 4개월 사이에 2승을 따내는 등 경사가 겹쳤다.

한국 선수가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19년 지은희 이후 6년 만이다. 2022년 대니엘 강(미국), 지난해 리디아 고(뉴질랜드) 등 교포 선수들이 정상에 올랐다.

3라운드까지 3타 차 단독 선두였던 김아림은 이날 세계 랭킹 1위 코다의 추격에 한때 공동 1위를 내주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3라운드까지 김아림에게 4타 뒤졌던 코르다는 이날 7타를 줄이며 15번 홀(파5) 버디로 김아림과 함께 17언더파 공동 선두가 됐다.

그러나 코다보다 한 조 뒤에서 경기한 김아림 역시 15번 홀 버디로 다시 1타 차 단독 1위를 되찾았고, 16번 홀(파4)에서 5m 넘는 중거리 버디 퍼트를 넣고 2타 차로 달아났다.

2타 차 리드를 안고 마지막 18번 홀(파4)에 들어선 김아림은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앞 조에서 경기한 코다가 긴 거리 버디 퍼트를 떨구면서 1타 차로 바짝 따라붙었기 때문이다. 김아림이 마지막 홀에서 타수를 잃으면 연장전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아림은 16번 홀 때와 마찬가지로 중거리 버디 퍼트에 성공하며 20언더파를 채우고는 우승 세리머니를 펼쳤다.

고진영이 14언더파 274타로 이민지(호주)와 함께 공동 4위에 올랐다. 김효주는 8언더파 280타로 공동 10위다.

지난 시즌 LPGA 투어에서 3승에 그쳤던 한국 선수들이 올해는 개막전부터 우승하고, 상위권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달라진 2025시즌이 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난해 우승자 리디아 고는 13언더파 275타를 기록해 단독 6위가 됐다.

올해 LPGA 투어에서 윤이나 등과 함께 신인왕 경쟁이 예상되는 다케다 리오(일본)가 11언더파 277타로 단독 8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김아림이 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 골프 &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힐튼 그랜드 배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 18번 홀에서 승리를 확정지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페퍼스, 연패 끊고 '봄배구' 희망 살릴까

### V리그 5라운드 관전포인트

## 5연패 빠지며 6위로 내려 앉아

2024-2025시즌 V리그가 5라운드에 접어든 가운데, 남녀 프로배구단이 봄배구 사정권을 향해 치열한 경쟁을 이어 나가고 있다. 새로운 한 주 남자부에서는 현대캐피탈의 연승 잇기, 여자부에서는 페퍼스의 연패 끊기에 관심이 쏠린다.

남자부에서는 16연승 질주 중인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23승 2패·승점 67)의 독주가 눈에 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1일 안방에서 5위 삼성화재 블루팡스(8승 17패·승점 29)에 셧아웃 승리를 거두고 16연승을 이었다. 역대 최다 연승 2위 기록이다. 1위 기록 역시 이들이 가지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2015-2016시즌 당시 세운 '18연승'에 도전한다.

현대캐피탈은 연승 뿐 아니라 승점까지 야무지게 챙기며 2위인 대한항공 점보스(15승 9패·승점 47)에 승점 20점 차로 앞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28일(OK저축은행 읏맨전)부터 승기를 놓친 적 없던 현대캐피탈은 16경기 중 5경기에서 3-1승, 7경기에서 3-0승을 따내는 등 12경기에서 '승점 3점'씩을 쓸어담았다.

'나 자신과의 싸움'을 펼치고 있는 현대캐피탈은 오는 5일 오후 7시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 KB손해보험 스타즈를 상대한다.

여자부에서는 '5연패' 수렁에 빠진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8승 17패·승점 25)가 부진을 딛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페퍼스는 승점 2점 차로 뒤져있던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9승 16패·승점 26)가 지난달 28일 IBK기업은행 알토스에 셧아웃 승리를 거두면서 5위 자리를 내줬다.

이후 페퍼스는 31일 안방인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기업은행에 1-3패를 당하면서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이날 테일러가 양팀 최다 24득점을 올렸지만 팀 연패를 끊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구단 최다'인 3연승과 8승을 기록하며 최고의 시즌을 예고했던 페퍼스가 지난달 16일 흥국생명전에서 풀세트 패배한 후 부활의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다.

페퍼스는 오는 5일 서울 원정경기에서 만나는 '7위' GS칼텍스 서울Kixx(5승 12패·승점 18)에 승리를 거두고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한다. 지난 1일 '외인 주포' 실바를 앞세워 도로공사를 꺾은 GS칼텍스는 승점 7점 차로 페퍼스를 추격하고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손흥민 덕분에…토트넘 4연패 탈출

## 상대 자책골 유도·쐐기골 도와

손흥민〈사진〉이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고 파페 사르의 쐐기 골을 도우면서 소속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리그 4연패 탈출을 이끌었다.

토트넘은 2일(한국시간) 열린 2024-202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브렌트퍼드를 2-0으로 꺾었다.

토트넘은 EPL 4연패에서 드디어 탈출했다. 최근 리그 7경기에서 1무 6패로 부진했던 토트넘은 8경기 만에 모처럼 승점 3을 따냈다.

'캡틴' 손흥민은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전반 30분 상대 자책골을 유도해 토트넘에 리드를 안겼다.

손흥민이 왼쪽 구석에서 문전으로 코너킥을 올렸는데, 브렌트퍼드 수비진의 등을 맞고 굴절된 공이 그대로 골망으로 빨려 들어갔다.

손흥민은 전반 41분 브렌트퍼드의 역습 찬스에서 브라이언 음베우모의 질주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하게 부딪쳤고, 상대의 유망한 공격 기회를 차단하며 경고를 받았다.

손흥민은 브렌트퍼드의 공세에 밀리던 후반 42분, 파페 사르의 쐐기골을 도왔다.

왼쪽 측면에서 공을 몰고 전진한 손흥민은 상대 수비진 사이로 밀어줬고, 사르가 오른발 슈팅으로 골키퍼 다리 사이로 차 넣어 2-0을 만들었다.

올 시즌 손흥민의 리그 7번째 도움이다.

손흥민과 사르의 합작 골로 토트넘은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브렌트퍼드의 젊은 수비수 김지수는 이날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한국인 선후배 간 코리안더비는 무산됐다.

전반 6분 토트넘 데얀 쿨루세브스키의 빗맞은 오른발 슈팅이 골대 옆으로 흐르자 쇄도한 히샤를리송이 슬라이딩하며 다리를 뻗었으나 간발의 차로 닿지 않아 득점이 무산됐다.

전반 27분 브렌트퍼드가 역습 한 방으로 선제골을 노렸다. 음베우모가 오른쪽 측면에서 토트넘 수비 라인을 허물고 페널티 라인으로 공을 몰고 들어간 뒤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골키퍼 안토닌 킨스키가 안정적으로 잡아냈다.

토트넘은 전반 30분 손흥민의 코너킥에 따른 행운의 득점에 힘입어 전반을 1-0으로 앞선 채 마쳤다. 후반전에서 후반 42분 손흥민의 도움에 이은 사르의 깔끔한 마무리로 2-0 완승을 거뒀다.

/연합뉴스